110-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
전화 02-3702-2100 팩스 02-3702-2121
한국갤럽 홈페이지 www.gallup.co.kr

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/02/07

2013년 한국인의 설 풍경

올해 설 연휴는 토, 일요일과 겹쳐 아쉬운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.
우리 국민들은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낼까요?
한국갤럽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,511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고향방문 계획, 차례 방식, 가족/친지들과 하는 설 놀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조사 개요

1. 조사기간: 2013년 1월 28일~2월 1일(5일간)
2. 표본추출: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
3. 응답방식: 전화조사원 인터뷰
   (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)
4. 조사대상: 전국의 만 19세 이상 1,511명
5. 표본오차: ±2.5%포인트(95% 신뢰수준)
6. 응답률: 19%
7. 의뢰기관: 한국갤럽 자체조사

주요 결과

- ✓ 설 연휴 고향방문 계획: 36% - 2009년 대비 10%포인트 줄어 -
- ✓ 고향방문 목적지(市/道): '부산/울산/경남' 19%, '광주/전라' 17%, '대구/경북' 16%
  - 서울 거주자 중 충청권 이남으로 고향 방문하는 비율 64%
- ✓ 유교식으로 절하며 차례를 지내는 가구: 70%
  - 종교별 큰 차이(불교인 92%, 종교없음 81%, 천주교인 71%, 기독교인 25%) -
- ✓ 설 명절에 가족과 하는 놀이: '윷놀이' 27%, '고스톱' 15%
  - 7년 전 대비 '고스톱', '윷놀이' 급감(고스톱 42%→15%, 윷놀이 38%→27%) -
- ✓ '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': 51%
  - '즐겁지 않다' 37%,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즐겁지 않다는 응답 늘어 -

설 연휴 고향방문 계획: 36% - 2009 년 대비 10%포인트 줄어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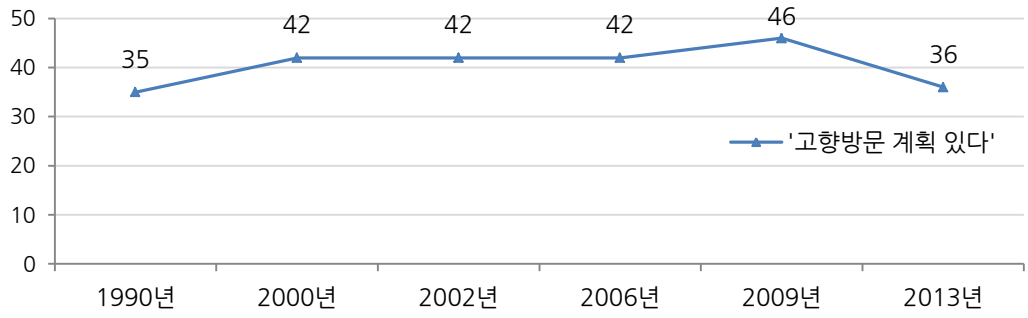
우리 국민의 36%가 이번 설에 고향방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4년 전인 2009년에 비해 10%포인트 줄어든 것이다.

한국갤럽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,511명에게 설 연휴를 맞아 1박 이상으로 고향을 방문하거나 관광여행을 할 계획이 있는지 물은 결과 '고향방문 계획만 있다'는 응답이 35%, '고향방문과 관광여행 모두 계획하고 있다' 1%로 고향방문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모두 36%인 것으로 나타났다.
'관광여행 계획만 있다'는 1%, '둘 다 계획이 없다'는 응답은 63%로 조사됐다.

2009년에 46%가 고향방문 계획이 있다고 했던 것에 비해 올해 고향방문은 10%포인트가 감소했으며, 이는 연휴가 짧아 고향방문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

설 연휴 고향방문 계획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았고
연령별로는 40 대 이하 자녀세대에서 주로 고향방문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.

▶ **설 연휴 고향방문 계획** (단위: %)



구분		표본수 (명)	고향 방문만	고향방문, 관광여행 모두	고향방문 전체	관광 여행만	둘 다 계획 없다
전체		1,511	35	1	36	1	63
성별	남 성	748	40	0	40	1	59
	여 성	763	30	1	32	2	67
연령별	19~29세	275	42	1	43	2	56
	30대	306	48	1	49	2	49
	40대	331	46	2	48	2	50
	50대	288	28	-	28	1	71
	60세 이상	311	10	-	10	1	89

(질문) 오는 2 월 10 일(일)은 음력 1 월 1 일, 즉 구정 설날입니다. 귀하께서는 이번 설에 1 박 이상의 고향방문이나 여행계획이 있습니까? (있다면) 고향방문이십니까, 관광여행이십니까?

우리의 음력 설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'구정'으로 불리다가 1985 년 '민속의 날'로 지정돼 하루 공휴일이 됐고 1989 년 비로소 '설날'로 개칭돼 전후 하루씩 총 3 일 공휴일이 됐다. 이번 조사 결과, 우리 국민의 92%는 '음력 설'을, 5%는 '양력 설'을, 2%는 '둘 다 지낸다'고 답했다. 한편, '둘 다 지내지 않는다'는 응답도 2% 있었다.

고향방문 목적지(市/道): '부산/울산/경남' 19%, '광주/전라' 17%, '대구/경북' 16%
- 서울 거주자 중 충청권 이남으로 고향 방문하는 비율 64% -

올해 1박 이상의 고향 방문 계획이 있는 응답자들(539명)에게 방문하는 시/도를 물은 결과 '부산/울산/경남'이 19%로 가장 많고, 그 다음 '광주/전라' 17%, '대구/경북' 16%, '인천/경기' 16%, '대전/충청' 14%순으로 나타났다.

현재 거주하는 지역별로 보면 서울 거주자(103명)는 대전/충청으로 22%, 부산/울산/경남으로 21% 이동하는 등 전체의 64%가 충청권 이남으로 이동하는 반면
광주/전라(62명), 대구/경북(57명), 부산/울산/경남 거주자(82명)의 경우 각각 같은 권역 내에서 이동하는 비율이 많고(81%, 69%, 66%), 수도권 이동 비율은 10% 미만으로 적었다.

▶ **고향방문 시도**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 (명)	서울	인천/ 경기	강원	대전/ 충청	광주/ 전라	대구/ 경북	부산/ 울산/ 경남	응답 거절	충청권 이남
전체		539	10	16	6	14	17	16	19	1	67
거주 지역 별	서울	103	6	23	5	22	14	8	21	2	64
	인천/경기	162	15	29	9	16	13	10	8	-	47
	강원	22	-	-	-	-	-	-	-	-	26
	대전/세종/충청	47	12	9	4	41	9	17	9	-	76
	광주/전라	62	6	3	-	2	81	4	2	2	89
	대구/경북	57	6	2	3	1	1	69	18	-	89
	부산/울산/경남	82	6	3	2	4	3	13	66	3	86
	제주	5	-	-	-	-	-	-	-	-	6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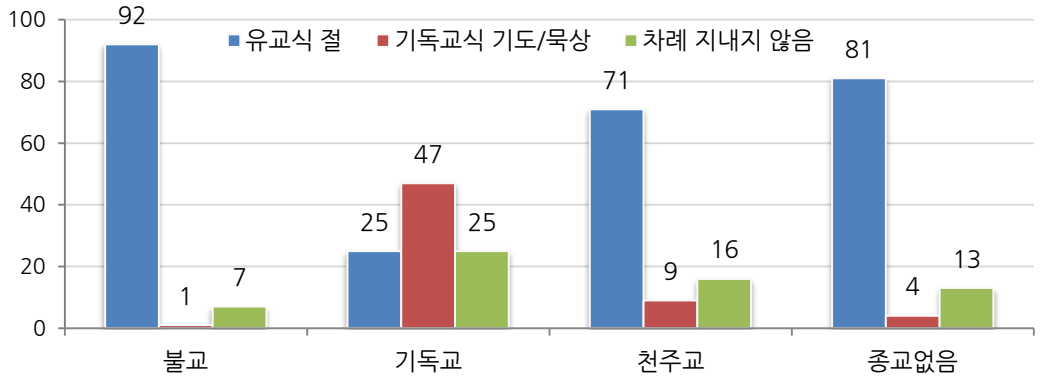
(질문) 귀하께서 방문하시는 고향은 어느 시도입니까?
*30 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.
*고향방문의 기준은 타 시도 이동이라도 1 박이 아니면 제외, 같은 시도 내라도 1 박 이상이면 포함.

유교식으로 절하며 차례를 지내는 가구: 70%
- 종교별 큰 차이(불교인 92%, 종교없음 81%, 천주교인 71%, 기독교인 25%) -

신정이나 구정에 어떤 방식으로 차례를 지내는지 물은 결과 '유교식으로 절을 한다'가 70%, '기독교식으로 기도나 묵상을 한다'가 14%로 나타났으며, '차례를 지내지 않는다'는 응답은 15%였다.

4년 전인 2009년에 비해 유교식 차례를 지내는 가구는 5%포인트 감소한 반면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가구가 6%포인트 늘었다.
종교별로 보면 불교인(351명)의 대부분(92%)과 종교가 없는 사람(674명)의 81%,
천주교인(119명)의 71%가 유교식 절을 하는 방식으로 차례를 지내는 반면
기독교인(358명)은 25%만이 유교식 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
기독교인의 절반 가량인 47%가 기독교식의 기도와 묵상을 한다고 응답했다.

▶ **신년 차례 지내는 방법** (단위: %)



구분		표본수 (명)	유교식 절	기독교식 기도/묵상	기타	차례를 지내지 않는다
연도별	2002년	1,502	79	11	1	9
	2006년	1,502	78	15	–	7
	2009년	1,507	75	16	–	9
	2013년	1,511	70	14	2	15
종교별	불교	351	92	1	0	7
	기독교	358	25	47	3	25
	천주교	119	71	9	4	16
	기타	7	–	–	–	–
	종교 없음	674	81	4	1	13

(질문) 귀 댁은 신정이나 구정에 차례를 지내십니까? (지낸다면) 유교식으로 절을 하십니까? 아니면 기독교식으로 기도나 묵상을 하십니까?
*30 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.
*2002~2009 년은 전국(제주도 제외) 개별면접조사, 2013 년은 전국 휴대전화 RDD 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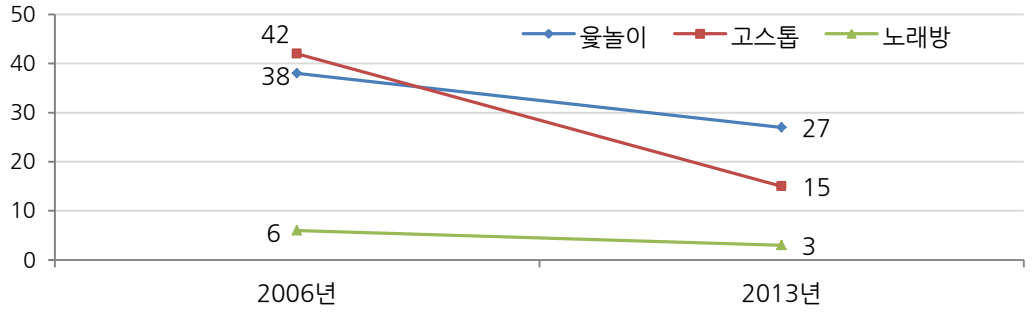
설 명절에 가족과 하는 놀이: '윷놀이' 27%, '고스톱' 15%
- 7 년 전 대비 '고스톱', '윷놀이' 비율 급감(윷놀이 38%→27%, 고스톱 42%→15%) -

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지난 설 명절에 윷놀이를 했으며, 7년 전에 비해서는 설 명절에 가족과 놀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작년(2012년) 설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과 어떤 놀이를 했는지 물은 결과, '윷놀이'는 27%, '고스톱'은 15%가 했다고 응답했으며 '가족과 놀이를 하지 않았다'는 응답은 57%로 절반 이상이었다.

2006년 조사에 비해 '고스톱'을 했다는 비율은 42%에서 15%로, '윷놀이'를 했다는 비율은 38%에서 27%로 급격히 줄었으며 이에 반해 '가족과 놀이를 하지 않았다'는 비율은 39%에서 57%로 크게 늘었다.

▶ **작년 설에 가족과 한 놀이** (단위: %)



구분		표본수 (명)	윷놀이	고스톱	노래방	기타	하지 않았다
전체		1,515	27	15	3	7	57
성별	남성	748	27	16	3	6	58
	여성	763	27	14	3	7	56
연령별	19~29세	275	28	17	3	5	56
	30대	306	24	19	3	9	56
	40대	331	27	15	3	5	58
	50대	288	28	16	3	8	54
	60세 이상	311	27	9	3	5	61

(질문) 귀하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가족, 친척들과 놀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?
(했다면) 어떤 놀이를 했습니까?

'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': 51%
- '즐겁지 않다' 37%,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즐겁지 않다는 응답 늘어 -

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즐거운 일인지를 물은 결과, '즐거운 일이다'는 응답이 51%, '즐겁지 않은 일이다'는 응답이 37%로 나타났다. 우리 국민의 절반은 즐겁다고 답했지만 즐겁지 않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결과다. 이 질문에 대해 '모르겠다/응답거절'은 11%였다.

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즐겁다는 응답은 남성(55%)에서 여성(48%)보다 많았고 20대(72%), 학생(75%)에서 많은 반면, 40대와 50대(47%, 49%), 자영업(47%), 블루칼라(47%), 가정주부(47%)에서는 즐겁지 않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.
또한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응답이 증가했다. 이들 계층에서 특히 경제적 지출 증가와 가사 노동 부담이 설 명절을 마냥 즐겁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

▶ **설 명절을 맞이하는 기분**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(명)	즐거운 일	즐겁지 않은 일	모름/응답거절
연도별	2002년	1,502	65	36	-
	2006년	1,502	59	41	-
	2009년	1,507	59	41	-
	2013년	1,515	51	37	11
성별	남성	748	55	33	12
	여성	763	48	42	10
연령별	19~29세	275	72	18	10
	30대	306	56	32	12
	40대	331	43	47	10
	50대	288	39	49	12
	60세 이상	311	49	39	12
직업별	농/임/어업	46	42	51	6
	자영업	190	43	47	9
	블루칼라	234	45	47	8
	화이트칼라	404	59	27	15
	가정주부	339	44	47	9
	학생	154	75	17	8
	무직/기타	144	48	35	17
주관적 생활수준	상/중상	137	66	25	9
	중	588	60	29	11
	중하	443	45	42	12
	하	325	40	50	10

(질문) 귀하께서는 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, 혹은 즐겁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-3702-2571 dhjang@gallup.co.kr